

청년 5명 인생 망친 '악마의 유혹 음주운전'

지난달 28일 교통사고...교사 꿈 20살 광주 교대생 사망 함께 횡단보도 건너던 친구 죄책감 트라우마 시달려 가해자는 신입 사원...동승자 2명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위기

음주운전이 꿈꿨던 20대 청년 5명의 인생을 파탄 냈다. 4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광주교 육대학교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 자 A(28)씨의 스포티지 SUV 차량이 횡단 보도를 빨간불에 건너고 있던 B(20)씨와 그 친구 C(20)씨를 덮쳤다. A씨의 차량을 보고 B씨와 C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피했지만, B씨 앞편을 발견 해 놀란 A씨도 급히 운전대를 틀면서 B씨 를 충돌했다. B씨는 서있던 횡단보도에서 공중으로 떠오른 뒤, 수심 m를 미끄러져 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 을 잃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 농 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9%였다. 그는

사고 후 지산유원지 앞까지 3km를 도주했 다. 이날 사고로 20대 청년 5명의 인생도 풍 비박산이 됐다. 외동아들이었던 숨진 B씨는 지난해 교 대에 입학해 교사의 꿈을 꾸던 착실한 스 무 살 청년이었다. 어린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B씨는 축구선수보다는 학교 선 생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꿈은 이 사 고로 꺾이고 말았다. 사고 당시 함께 사고장소를 걸었던 C씨 는 숨진 B씨와는 같은 교대생으로 학교에 서도 소문난 '절친'이었다. 이날 C씨는 B씨와 새벽까지 같이 교사 의 꿈을 이야기 하며 교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친구 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

고 말았다. C씨는 친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숨졌 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병원 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 자는 "C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서 괴성을 지르는 등 너무 괴로워하고 있 다"며 안타까워했다. 음주사고를 낸 A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 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날 사고로 자신을 믿고 의지해 온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약 회사에 취업한 지 6개월째인 신입사원 A 씨는 집안에서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회사의 동료와 후배들이 모 인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사고 장소까지 18.7km정도를 운전하는 동안 이 차에는 동료인 D씨, E씨 등 2명도 동승하 고 있었다. D씨와 E씨는 A씨의 직장 동료와 후배 로 이들도 20대다. D씨와 E씨는 사고장소까지 가기전 모 두 내려 귀가했지만, 다음날 사고 소식을 접하고 A씨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고 방 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사고 후 도주한 A씨는 강화된 '운 창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는 엄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경찰은 D씨와 E씨에 대해서도 음주운 전 방조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며, 이들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 에 대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음주사고를 내겠다고 작정한 범죄행위"라면서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순간 차량은 흥기로 돌 변한다. 음주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삶은 물론 그가 속한 가족과 선량한 타인의 행 복까지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중 대범죄"라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학년 수학문제도 문제집서 그대로

광주 사립고 문제 추가 유출 드러나...목포선 심화반에 사전 문제 제공

시험문제 유출 사태가 터진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이번엔 1학년 시험문제 일부 가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추 가 드러났다. 또 목포의 한 고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심화반에게만 사전에 문 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 주-전남지역 교육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 임'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한 사립고에서 지난달 치러진 1학년 기말고사 수학문제 중 2문제가 특정 문제집에 실린 것과 동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집에 실 린 것과 지문이 똑같았고, '오지나' 형 식의 답안 보기는 순서만 다를 뿐 동일했 다. 서술형 문제는 기존 문제집의 객관식 을 서술형 형태로 바꿔 그대로 출제됐다. 시민모임 측은 학교 측이 동아리 등 특 정 학생들에게만 해당 문제집을 사도록 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 라며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학교는 지난달 치러진 기말고사 3 학년 수학시험 문제 5개를 성적 상위권 기숙사 학생들이 활동하는 수학동아리 에게 사전에 제공해 교육청의 특별감사

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목포의 한 사립고에서도 심화 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에서 시험문 제 7개가 출제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전 남도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의 1차 조사결과 EBS 교재에서 출제된 4개 문제 중 2개 문제는 변경돼 출제됐지만, 나머지 2개 문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머지 3개 문제는 사실 문제집 에 실린 문제를 변형했으며, 심화반 학생 들이 주축으로 진행되는 방과후수업 때 사용했던 교재인 것으로 드러나 형평 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5일 해당 학교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여 성적이 우수한 심화반 학생 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 할 방침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심화반 학 생들에게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은 내신 중심의 현 임시 제도를 뒤흔드는 것"이라 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해 추 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담양서 외국인 근로자 후진 지게차 치여 숨져

3일 오전 10시 4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에서 직원 이모(50)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A(20)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지게차 바퀴에 깔려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게차 후진을 하던 중 뒷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 로 알려졌다. 지게차 운전자 이씨는 지게 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무등산 시기문화권 문화나들이 광주시 북구는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2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시기문화권 문화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무기산 1만2000 l 운반 구매 운수업자·양식업자 불잡혀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1만2000 l 를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운수업자와 양식 업자가 해경에 불잡혔다. 완도해경은 4일 김 양식장에 쓰기 위해 유해물질인 무기산을 구매한 김 양식자 소 모(여·47)씨와 이를 운반한 윤모(35)씨 등 2명을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양식업자 소씨는 해남군 송지현 동현마을에서 윤씨의 5t 트럭에 실린 무 기산을 내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 장에서 불잡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폭염 속 실종사고 잇따라

고흥 30대·완도 70대 실종 해남 치매 노인 3일만에 구조 전남에서 폭염 속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고흥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30분께 고흥군 과역면 한 마을에서 A(35)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

가 접수됐다. 경찰은 마을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 해 A씨가 신고 당일 오전 마을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군 소방당국 등 150여명을 동 원해 마을 인근 야산 등을 수색하고 있다. 완도군 노화읍 서널도에서는 마을 주민 B(여·75)씨가 3일째 보이지 않는다는 신 고가 지난 3일 해경에 접수됐다. 마을 주민 들은 평소 발일 등을 자주하던 B씨가 지난 달 31일부터 보이지 않자 자체 수색에 나 섰고, 해안가에서 200여m 떨어진 산속에 서 B씨의 노인용 보행기를 발견한 뒤 실종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 2척·민간어선 7척· 여수해경항공대 헬기 1대·수중수색 2명· 마을주민 해안가 10명 등을 동원해 B씨를 찾고 있다. 앞서 해남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길을 잃고 야산을 헤매다 3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폭행 영상은 5월 충남서 발생 사건

양측 합의로 사건 종결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 폭행 영상' <광주일보 2019년 8월 2일자 6면>은 지 난 5월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해 경찰 조 사가 끝난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 다. 광주광안경찰은 "해당 영상은 지난 5 월 26일께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한 밭 에서 한국인 관리자 A(45)씨가 우즈베 키스탄 국적의 B(32)씨를 폭행하는 모 습을 동료 노동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 고 4일 밝혔다. 서산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지

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 (SNS)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 가해 자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입소 문이 퍼져나가며 영상 속 장소가 전남의 한 지역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주 재소장은 "영상 속 피해자가 자국민으로 추정된다"며 영상 속 가해자를 처벌해달 라는 고발장을 광안경찰에 제출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붕괴 사고 클럽, 美 '코요테 어글리' 상호 무단 도용

상대발 ○·붕괴사고로 27명 의 사상자를 낸 광주상무 지구 클럽 '코요테 어글리'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피소될 처지. ○·4일 특허법인 화우에 따르면 '코 요테 어글리' 상표권자인 미국 프랜차이즈 클럽 브랜드 '어글리 인코퍼레이티 드'는 광주의 사고 클럽이 자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겠

다고 밝혀왔다는 것.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실제 주 인공이자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 대표 릴리아나 러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에는 매장이 없음에도 사고 관련 문의가 쇄도해 당황했다.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 하며 상표권 무단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 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